

반복되는 가축분뇨 악취... “정책 전환 필요”

도의회 환도위 행정시 업무보고서 양돈 정책 문제 질타
지도·단속만으론 한계... “악취저감 시설 개선 우선돼야”

제주시 서부지역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관련 민원 해소에 대한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존 양돈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지원에서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더불어민주당, 성산읍))는 15일 제45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에서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한 행정력

의 한계성을 집중 제기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시에는 양돈장 258개소이고 사육두수는 53만마리로 제주도의 71% 양돈장이 서부지역에 밀집해 있다”며 “특히 지난해 제주시에만 접수된 축산 악취 민원이 1500여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5% 가량 증가했는데 관리방식이나 단속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돈산업 허가는 축산부서가, 악취 등 지도·점검은 환경부서가, 관련 민원은 양 행정시가, 그

리고 양돈 관련 정책은 제주도가 수립하고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양돈산업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제주 최대 양돈산업 지역인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악취 저감을 위한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이주민이나 관광객 우선이 아닌) 특히 한림읍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탈취제를 살포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행정으로서 할 일이 맞

느냐”며 “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만 할 게 아니라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양돈장 시설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시설 개선을 할 수 없는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등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행정에서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도정 출범에 따른 100대 정책 과제에 포함돼 있고, 도정과 행정시, 각 읍면동까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초복 더위 이기는 삼계탕 절기상 초복인 15일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는 물려드는 손님들에게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을 내놓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무더위 속 제주 해수욕장 4곳 한 달간 ‘연장 운영’ 내달 15일까지 삼양·월정 오후 8시... 이호·협재 오후 9시까지

15일부터 제주시 삼양·월정이 오후 8시까지, 이호·협재는 오후 9시까지 각각 해수욕장 운영시간이 연장됐다.

제주시는 본격적인 피서철과 폭염·열대야가 이어지는 여름철 이용

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부 해수욕장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권 8개 해수욕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중이다. 이번 운영시

간 연장으로 월정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야간 조명시설을 갖춘 협재해수욕장과 이호테우해수욕장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이에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

욕장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안전관리자, 민간안전요원, 행정도우미 등 분야별 채용을 마무리했고 사전교육을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력 211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아울러 연장 운영기간에는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출입 통제와 안내방송 등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확대한다. 백금탁기자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지난 14일 애월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발대식 모습. 제주시 제공

제주시, 연말까지 농어촌 방치 쓰레기 수거 3억 투입 신규 추진... 읍면동 클린농촌반 운영

제주시가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아름다운 농어촌 조성을 위한 신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50%로 구성되며,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이에 시는 공모 절차를 통해 최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회장 강윤희)를 최종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 수행단체는 지난 10일 한국농

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활동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는 각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10명 내외로 구성된 ‘클린농촌반’을 15일부터 현장에 투입한다.

이들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과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을 함께 전개한다.

아울러 수거된 쓰레기를 각 읍면동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에 올바르게 분리배출이 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여름방학 천문교실 ‘생일 별자리’ 주제... 7월 22일~8월 6일 수·목 운영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위한 천문교실이 문을 연다.

서귀포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별자리와 천문우주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에서 특별 천문교실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일 별자리’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황도 12궁에 대한 기초 천문학 지식을 배우고, 자신이 태어난 시기의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천문교실은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8월 6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오

후 3시에 운영된다. 대상은 6세 이상 어린이와 초등학교생이며 회차별 모집인원은 20명이다.

프로그램은 1시간가량 이뤄지며 황도 12궁을 주제로 한 천문학 강의와 함께 ‘나의 생일 별자리 도장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서귀포시 E-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전화(064-739-9701) 또는 누리집(http://culture.seogwipo.go.kr/astrom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금탁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도상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당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